



# ●● 침터의 장

마음의 촛불 \_ 또 다른 인생

고 사 성 어 \_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골 프 \_ 미들 아이언②

## ● 마음의 촛불



## 또 다른 인생

경험이란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다. 경험이란, 인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고 무엇을 했는가를 의미한다.

**만** 일 당신이 마흔여섯 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상을 입었으며, 다시 4년 뒤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대도 당신은 백만장자가 되고, 유명한 연설가가 되고, 게다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신체를 갖고 급류 뗏목타기를 하러 갈 수 있겠는가? 스카이다이빙은? 정치 사무실 운영은?

조지 미첼은 이 모든 일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해낸 사람이다. 그는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해 누더기를 킷듯이 얼굴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손에는 손가락이 없어졌고, 다리는 휠체어에 묶인 채 가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신체의 65퍼센트 이상에 화상을 입은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포크도 사용할 수 없고, 전화기의 다이얼도 돌릴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대원이었던 미첼은 자신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미첼은 말했다.

“나는 내가 조종하는 우주선의 선장이다. 우주선이 올라가도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도 내가 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하나의 좌절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

로 내 자신의 선택이다.”

여섯 달 뒤 미첼은 다시 경비행기를 타기 시작했다. 미첼은 콜로라도에 빅토리아풍의 집과 약간의 토지, 경비행기 한 대와 스탠드바를 구입했다. 훗날 그는 두 명의 친구와 합작해 나무를 이용하는 난로 회사를 차려 버몬트에 두 번째로 큰 기업체로 발전시켰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미첼이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이륙 도중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갈비뼈 12개가 부러졌고, 하반신이 영구적으로 마비되었다.



● 고사성어

“나는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가 어떤 악업을 쌓았기에 이러는 것인지 알고 싶기도 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 미첼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그는 콜로라도 주의 크레스티드 뷰트(뷰트는 평원의 고립된 산이나 언덕을 나타내는 지명)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곳의 아름다움과 환경을 파괴하려는 광산업자들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미첼은 미 의회 진출을 시도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기이한 외모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선거 슬로건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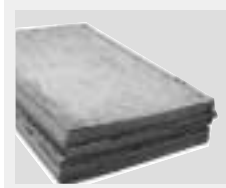
“예쁘장한 얼굴 또 뽑아 봐야 아무 소용없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 주는 얼굴 모습과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첼은 급류 뗏목타기를 시작했다.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행정학과에서 학위를 땀으며, 경비행기 조종과 환경보호운동과 대중연설을 계속해 나갔다.

미첼의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그는 <투데이 쇼>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으며 <뉴욕 타임즈>, <타임>, <퍼레이드>지의 특집기사로 다루어졌다.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만 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9천 가지가 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1천 가지를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내게 가능한 9천 가지를 하면서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내게 달려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에서 두 개의 큰 바윗돌을 만났다고 말하곤 한다. 그걸 핑계로 당신은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위에 올라가 더 멀리 바라보면서도 별것 아니군, 하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하는가이다.”

<잭 캔필드·마크 빅터 한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중에서>



##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숙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주** 나라 서백(西伯-文王)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려고 점을 쳐보았더니 “잡히는 것은 용이 아니요, 이무기도 아니며,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며, 얻는

것은 패왕의 보필이리라”고 했다.

과연 사냥에 나가 말을 달려 산과 들을 돌아다녀도 짐승이라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고, 어느덧 위수 물

● 고사성어

가에 이르러 가난해 보이는 한 노인이 낚시를 물에 담고 앉아 있는 걸 보았다.

말을 걸어 보니, 하는 대답이 훌륭하여 큰 인물임을 짐작케 했다. 서백은 이 분이야말로 오늘 점괘에 나온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의 부친은 언젠가 성인이 나타나서 주나라를 흥하게 해주실 거라고 기다리셨는데, 그 성인이 곧 당신이올시다. 아무쪼록 저를 위해 스승이 되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하며 그 노인을 수레에 모셔 왕궁으로 데려왔다.

이리하여 그 노인 여상(呂尙)은 문왕의 스승이 되어 주나라의 번영을 가져오게 했는데, 태공(太公)이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이라 하여 태공망(太公望)이라 불렀다.

이 태공망 여상이 아직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마씨의 딸을 아내로 얻었는데, 남편인 그는 매일 집안에 들어앉아 글공부만 할 뿐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았다. 본시 넉넉한 집안도 아닌 터라 공부만 하고서는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여상이 별이를 하지 않는 한 생활은 곤궁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는 날마다 글 읽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내 마씨는 한 푼 생기지도 않는 책만 읽고 있는 남편이 싫어져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오늘로 떠나겠소” 하며 스스로 이혼을 청해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내를 잃은 여상은 그래도 가난을 참으며 학식을

쌓아 드디어 서백의 스승이 되었고, 나중에는 제후로서 제나라의 임금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을 세우고 이름이 높아진 여상에게 어느 날 홀연히 마씨가 찾아와서 말했다.

“전날 끼니도 어려운 가난한 살림이라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시다마는, 이제는 이렇게 출세하셨으니 저를 아내로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 그릇의 물을 떠오더니 땅에 붓고는 마씨에게 빈 그릇을 주며 땅에 쏟은 물을 도로 그릇에 담라고 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마씨가 물을 도로 담으려 하나, 물은 땅에 배어들어 버리고 진흙만 담겨질 뿐이었다. 이때 여상이 말했다.

“한 번 옆질러진 물은 본디 그릇에 돌아오게 할 수 없고,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다시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오.”

즉, 한 번 이혼한 아내는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지만 ‘국가의 일이 어찌 쉬우리오. 옆지른 물은 그릇에 돌아오지 않으니, 이를 깊이 잘 생각’ 할지라든가, ‘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옆지른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는 등 한 번 끝난 일은 다시 고치기 어렵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오세경의 「중국고사성」中에서>





## 무릎을 유연하게 쓰며 사면(斜面)을 따라서 쳐 낸다

### 작은 스윙으로 정확하게 미트

**사**면(斜面)의 스윙에서 조심할 것은 휘두름의 크기이다. 발밑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크게 휘둘러서는 정확한 쇼트를 할 수 없다. 무릎에 여유를 주고 저스트 미트를 기하여야 한다. 백스윙은 어깨높이에서 멈추고 폴로우 드루우도 좀 작게 한다. 특히 미스 샷을 한 볼이 사면에 있을 때, 단발 역전을 노리고 크게 휘두르기가 쉽다. 콤팩트한 스윙으로 숨쉴 있게 볼을 보내야 한다.

오른발이 낮아지게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몸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게 된다. 오른쪽으로 기울인 채 스윙을 하면 건져 올리는 타법이 되어버려, 다후리나 톱의 미스 샷을 초래하게 된다.

정확하게 쳐냈다고 하더라도 볼은 높이 올라갈 뿐 원하는 비거리는 얻을 수 없다.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일



〈왼발이 내려가는 사면〉

왼발이 올라가는 사면에서는 볼이 왼쪽으로 꺾인다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만 한다.

수록 볼을 잡는 클럽헤드의 로프트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사를 거슬러서 몸을 왼쪽으로 일으키면 올라가는 사면에 들이대는 형국이 되어, 폴로우 드루우를 취할 수가 없다. 클럽헤드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볼의 앞쪽을 때린다든지 혹은 페이스가 볼을 덮쳐서 맞아버려 왼쪽으로 튕겨버린다.

### 무릎을 왼쪽으로 밀어 보내고 자세를 취한다

왼발이 올라가는 사면에서 왼쪽으로 튕겨내는 페이스가 적지 않다. 게다가 무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멈추어 무릎을 내놓기 쉽도록 미리 무릎을 왼쪽으로 밀어 보내 놓는다.

오른쪽 무릎을 밀어 보내 놓으면 백스윙에서 오른쪽 무릎이 뒤로 잘 흐르지 않으며, 다운스윙에서는 무릎이 왼쪽으로 쉽게 나온다.

왼쪽으로 튕기는 것을 막는데도 이 오른쪽 무릎을 밀어 보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무릎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몸은 멈추고 손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미리 무릎을 밀어 보내 놓는 것은 몸을 돌릴 여유를 준비해 두는 것이 되기도 한다. 몸이 제대로 돌게 되면 손만 돌아와서 볼을 왼쪽으로 튕기는 미스샷을 줄일 수가 있다.

### 경사를 따라서 쳐 낸다

볼의 위치는 평지보다 약간 안쪽이다. 미들 아이언은

● **골프**

왼발꿈치에서 볼 2개 반 안쪽이다.

왼발이 올라갈 때에는 그 위치에서 볼 1개 더 안쪽이다. 볼을 바깥쪽에 놓으면 건져 올리는 식의 스윙이 되어, 볼은 떠오르기만 할 뿐 거리가 나지 않는다. 또 너무 안쪽에 놓으면 칠 때 몸이 뒤로 물러나 균형 잡힌 스윙을 할 수가 없다.

머리는 볼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자세를 취한다. 볼의 등을 보고 자세를 취하면, 몸이 뒤에 처져서 떠올리는 타법이 되고 만다. 머리를 볼의 바로 위에 두면,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경사를 거스르는 형국이 된다. 클럽헤드는 경사면을 따라서 휘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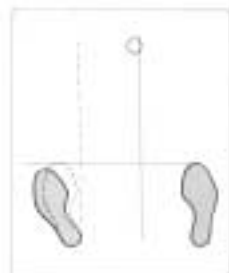
**작은 백스윙과 플로우 드루우**

백스윙은 콤팩트하게 취한다. 미리 오른쪽 무릎을 밀어 보내 놓았기 때문에, 큰 백스윙은 못하게 된다. 백스윙이 작은 만큼 볼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왼쪽 무릎도 약간 왼쪽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이 왼쪽 무릎과 왼손으로 잡아당기듯이 스윙하도록 한다. 손목을 트는 것이 아니라, 왼쪽 무릎을 밀어 보내는 것으로써 클럽을 쳐내는 것이다.



왼발이 올라가는 사면에서의 쇼트는 무릎의 여유가 중요하다. 오른쪽 무릎은 미리 조금 밀어보내 놓는다. 볼의 위치는 한가운데보다 약간만 왼발에 가깝게



플로우 드루우는 어깨 높이에서 멈추는 정도의 기분으로 작게 쳐 낸다. 크게 휘두르려고 하거나 왼쪽 무릎을 고정해 버리면, 손목이 틀어지고 결국 손치기가 되고 만다.

**겨냥은 목표의 오른쪽 사이드**

왼발이 올라가는 경사에서 그린을 겨냥할 때는 볼이 왼쪽으로 구부러진다는 것을 계산에 넣고 목표를 잡아야 한다. 경사의 각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그린의 오른쪽 사이드를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스탠스가 오른쪽으로 향할 필요는 없다. 스탠스를 오른쪽으로 향하면 몸을 벌리기 거북해지며 손목이 틀리고, 왼쪽으로의 구부러짐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

다만 왼발 발끝은 평지에서 칠 때의 자세보다 조금 더 벌리는 게 좋다. 플로우 드루우에서 몸이 벌어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스윙 원호의 최저점을 볼 끝에 놓지 않으면 클럽헤드는 볼 앞의 땅바닥을 때리고 만다.

**사면과 탄도의 관계를 파악**

왼발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면을 따라서 클럽을 대면 평지에서 자세를 취할 때보다 그 로프트가 커진다. 클럽 페이스가 위를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사용하는 클럽보다 하나 더 큰 클럽을 사용한다. 로프트가 위를 향하는 만큼 볼은 높이 떠오르고, 비거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왼발이 내려가는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경사에 맞추어서 자세를 취하면 평지에 비해서 로프트가 작아진다. 따라서 볼이 낮게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리하게 볼을 올리려고 하면 경사를 따라서 스윙을 할 수 없다. ○